

항공업계 '보이콧 재팬' 직격탄...성수기도 역성장

2분기 이어 3분기도 실적 부진...신생 3사 가세로 과잉경쟁 관측



국내 항공업계가 줄줄이 적자를 기록한 2분기에 이어 최대 성수기 3분기도 실적 부진이 시달린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 경제보복 이슈로 불거진 불매운동 여파로 수요가 급감한 데다, 환율 등 외부요인이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항공사들도 이같은 위기감을 감지, 비상경영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신생 항공사들이 업계에 진출하면서 업황 부진을 탈피하기 힘든 여건으로 치닫고 있다. 항공업계가 구조적 불황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달 30일 항공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의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일제히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30%나 줄었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저비용항공사(LCC) 역시 누적 적자가 심화됐을 것이라 관측이다. 에어부산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80% 가까이 급감했

다는 전망도 나온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예상을 하회하는 부진한 3분기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특히 LCC들은 성수기인 3분기도 영업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3분기는 항공업계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여름 휴가철을 물론 추석 연휴까지 겹쳐 여객수요가 많이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항공사들의 실적 전망치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업계 전체가 부진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이다. 지난 8월부터 고수의 노선인 일본 노선의 여객이 줄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실제 항공통계를 분석 결과 지난 8월 한 달간 국내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여객수는 총 132만9547명으로 전년 동기(172만1564명)에 비해 2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과잉공급으로 여객 수요가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일본 이슈가 불을 지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여기에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

도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환율이 오르며 달러로 결제하는 항공유와 비행기 입차 비용이 늘어 항공사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항공사들은 업황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미 이스타항공은 지난 16부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단계별로 비용절감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10월부터는 1~3개월의 무급휴직도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항공도 '비상경영'이란 직접 표현은 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경영악화에 따른 조치로 국내선 운임을 인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감축 대신 동남아 노선 개발 및 취항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 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신규 항공사 3곳이 추가로 운항을 시작해 시장경쟁 또한 치열해진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근시일 내 업계 전반의 구조개편이 촉발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이번 불황을 기점으로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재무구조 건전성의 차이에 따라 성장성 차별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현금흐름 악화를 견디기 쉽지 않은 하위 항공사를 중심으로 2019년말에서 2020년쯤 의미 있는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뉴스1

“온라인 웃고 오프라인 울고”...소매유통업 경기전망 엇갈려

대한상의,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발표

유통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업종의 형태별로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은 긍정적 경기 전망을, 오프라인은 백화점을 제외하고 대형마트·편의점·슈퍼마켓 등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 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한 9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기업활동과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예측

을 종합해 지수화한 지표다.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업종 형태별로 살펴보면 무점포 소매(105)와 백화점(103)만이 4분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오프라인 업체인 대형마트(81), 편의점(78), 슈퍼마켓(75)은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무점포소매의 경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4분기 예정된 온라인 대규모 할인행사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 백화점은 롱패션, 겨울용 침구류 등 계절적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형마트는 경기 반등 요인이 적고,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 대규모점포 규제 등이 부담 요인으로 조사됐고, 편의점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 슈퍼의 경우는 온라인 유통 채널과의 최저가 경쟁과 기업형슈퍼마켓 대한 규제가 경기 전망을 어렵게 보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유통업체들은 '출점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54.1%), '제조업 수준의 지원'(16.5%), '최저임금 속도조절'(13.5%), '카드수수료 인하'(4.2%),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3.7%), '전문인력 양성'(3.7%)을 차례로 꼽았다.

뉴스1

닛산 “한국 떠나지 않는다”...철수설 공식 부인

첫 공식 입장 발표...“소중한 한국 고객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한국닛산이 판매 부진에 따라 제기된 국내 시장 철수설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 고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닛산이 외신에서 처음 보도된 철수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닛산은 지난달 30일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한국닛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한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을 확실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소중한 고객들을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닛산은 일본차 불매운동 등에 따른 판매 급감 등 국내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전했다.

한국닛산은 “사업 운영을 최적화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기존의 사업 운영 구조의 재편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사업 파트너사들과 함께 다시금 건



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상 소중한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제품판매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스1

“日 불매운동 여파에”...유니클로, 브랜드가치 27계단 하락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유니클로의 브랜드 가치가 수직 하락했다. 일본 여행 자체 분위기로 여행 브랜드 등도 '직

격탄'을 맞았다.

브랜드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 스타'가 발표한 3분기 대한민국의 100대 브랜드'에서 유니클로는 27계단 하락한 99위에 그치면서 순위권 탈락은 간신히 면했다.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도 9계단 하락한 24위를 기록하며 브랜드가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브랜드스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불매운동 여파가 국내 산업 여러 부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산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상승했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와 그랜저는 각각 28위, 58위에 랭크됐다. 무려 28계단, 27계단 상승한 수치다. 순위권 밖이었던 쏘나타는 올해 62위에 랭크되며 약진했다.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파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도 77위·96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1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